

Issue & News

2020 글로벌 지속가능투자자산(GSIA) 발표

: 글로벌 확산세 불구, 그린워싱 방지 관련한 규제 우려가 있는 EU는 감소

글로벌 지속가능투자자산 확대 지속 불구, EU는 그린워싱 방지 관련한 규제 등의 우려로 감소

지난 2020년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지속가능투자자산> 규모는 지난 2016년 및 2018년 대비 각각 54.5%, 15.0% 증가한 35조 3,01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음. 특히, 2020년 미국 지역의 지속가능투자자산이 2018년 대비 42.4%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글로벌 지속가능투자의 핵심 지역으로 분류되던 EU는 오히려 14.6% 감소한 12조 170억달러로 나타남. 동 자료는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이하 GSIA)의 'The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GSIR 2020)'의 최근 발표(2021.7.19)임.

특히, EU 지역의 2020년 글로벌 지속가능투자자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초 이후 지속된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가능투자 관련 입법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남. 즉, EU는 지속가능투자를 확대하면서도 기업의 그린워싱¹(Greenwashing) 등을 방지하려는 입법 추진 등 제도적 규제에 대한 우려 등이 2020년 EU 지속가능투자자산 감소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짐.

EU는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사회·환경 등 비재무정보공개지침(이하 NFRD)'과 '금융기관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이하 SFDR)',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관련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EU 분류체계 규정(이하 Taxonomy)', '기업 공급망의 실사의무(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s)를 부여하는 EU 공급망 실사제도' 등 지속가능투자 관련 제도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음.

참고로, 1) NFRD는 2020년에 개정안을 확정,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여 2024년 기업공시부터 반영될 계획이며, 2) SFDR은 1단계가 이미 지난 2021년 3월 10일에 시행 중이며, 3) Taxonomy는 2021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여, 2022년 기업공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며, 4) 공급망 실사의무는 일부 국가(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으로, EU 차원에서는 2021년 중 관련 법안 확정 후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이처럼, 지속가능투자 확대를 위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에게 비재무정보공개 등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기관은 이들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기업 비재무정보의 그린워싱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음. 이런 제도적 환경이 지난 2020년 EU지역의 지속가능투자자산 감소의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됨.

¹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상품이나 기술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2022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국내 상장법인도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등 지속가능투자 관련한 제도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음. 그동안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환경영향과 관련 깊은 기업 중심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던 것에서 그 공개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것임. 즉, 기업의 환경정보를 의무공시로 전환함에 따라 환경정보에 대한 외부감시 기능을 추가하여 그린워싱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이 과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한국거래소(KRX)가 집계하는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상장잔액>이 최근 110.5조원 (2021.07.30 기준)으로 기록됨. 이는 지난 2020년말 대비 34.6% 증가한 것으로 이 중에서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속가능채권>의 상장잔액도 12.9조원으로 전년말 5.5조원 대비 크게 증가함. 따라서, 최근 국내 지속가능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비재무정보공개 등을 통한 시장감시가 그린워싱 방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1. 글로벌 지속가능투자자산_GSIA 2020

(단위: 십억달러)

지역	2016년	2018년(B)	2020(A)	증가율(A/B)
유럽	12,040	14,075	12,017	-14.6%
미국	8,723	11,995	17,081	42.4%
캐나다	1,086	1,699	2,423	42.6%
호주	516	734	906	23.4%
일본	474	2,180	2,874	31.8%
소계	22,839	30,683	35,301	15.0%

자료: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_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2021.7.19 발표)

주: 전년대비 증가율

표2. 글로벌 전체 운용자산 중 지속가능투자자산_GSIA 2020

(단위: 십억달러)

지역	2016년	2018년	2020
총 운용자산(B)	81,948	91,828	98,416
지속가능투자자산(A)	22,872	30,683	35,301
(비중, B/A)	27.9%	33.4%	35.9%

자료: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_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표3. 국내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상장잔액 추이

(단위: 조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7.30
상장 잔액 ²	1.3	26.8	82.1	110.5
-녹색채권	0.6	2.1	3.0	12.9
-사회적채권	0.3	22.6	73.6	84.7
-지속가능채권	0.4	2.1	5.5	12.9

자료: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주: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안상희 센터장 02-769-3020)

² 녹색채권(Green Bond, 그린본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사회적채권(Social Bond, 소셜본드): 사회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본 보고서는 한국ESG연구소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강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